

한가위에도 웃지 못하는 자동차업계

기아차, 美 고율관세 부과시 18만대 생산 감소... 고용 불안 확산 금호타이어 6분기 적자...노조, 단협에 고용 안정 우선 과제로

풍성함을 느끼는 한가위에도, 불투명한 경제여건 등으로 지역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생산·소비가 가라앉은데다, 수출 물량마저 줄어들면서 자칫 성장 능력 훼손 및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18만대 사라진다는데...7000명 불안에 떠다=기아차 광주공장의 최대 현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다. 광주공장에서는 지난해만 전체 생산량(49만2233대)의 37.3%인 18만3959대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쏘울은 10만9625대(66.2%), 스포티지는 7만4334대(37.0%)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 조치를 실행할 경우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광주공장은 물량 감소가 불가피해져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당장,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되면 광주 3개 공장 중 1곳 물량인 18만대가 사라지게 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같은 점을 감안, 사측에 최근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7000여 노조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뿐 아니라, 광주지역 1차 자동차 부품업체 중 74.1%(2016년 기준)가 기아차에 납품하는 등 부품업체의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이 때문에 지역 자동차업종 전체의 고용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노조측 우려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가 정치권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는 이유다.

◇타이어 판매 감소...불안한 직원들=금호타이어 노조는 최근 회사 홈페이지에 "국내공장 생산 물량의 해외영업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단할 수 없어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지속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조원들에게 보낸 글로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만큼 암울한 회사 상황을 엿볼 수 있다는 게 지역 경제계 분석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분기부터 6분기 연속으로 적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으며 2분기 매출액도 6647억원으로 1년 전보다 6.7% 줄었다. 재고 물량이 쌓이면서 4월 이후 공장 휴무도 지속되고 있다.

노조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고용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석 이후 진행될 단체협약에서 고용 안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놓은 상태다. 광주공장의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중인 광주공장 이전 방안 등도 고용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과 연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 반납, 영업업외 감소, 재고 과다로 인한 공장 휴무로 지체되었을 조합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내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영업 물량을 확보, 살맛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경제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김현석 소비자가전(CE) 부문 대표이사가 광주를 찾아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은 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점, "광주사업장에서 AI와 사물인터넷 기반의 초프리미엄 가전제품 생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안도하는 분위기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08.98 (+5.97)	↑ 금리(국고채 3년) 1.98 (+0.01)
↑ 코스닥 831.85 (+2.97)	↓ 환율(USD) 1123.20 (-3.40)

광주은행 31사단 위문금 1000만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8일 오전 제31향토보병사단(사단장 소영민)을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100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 방호와 대민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문 방문을 실시한 광주은행은 말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송종욱 은행장은 "지역의 국토방위와 더불어 지역민을 위한 각종 대민지원 활동을 해주는 군 장병들이 있어 든든하다"며, "추석 명절에도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장병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31향토보병사단은 광주광역시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향토 예비군 보병사단으로 지난 1955년 2월 강원도 화천에서 창설해 같은 해 4월 현재 위치로 옮겨와 광주·전남지역의 국가 주요시설 방호와 서남해안 경계, 예비군 훈련 등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불 진



광주은행 31사단 위문금 1000만원 전달. 송종욱 은행장(왼쪽)은 소영민 사단장(가운데)과 함께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국세청, 현장 찾아 목소리 경청 무등시장서 장보고 상인들 애로 청취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환)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18일 자매결연 전통시장인 '무등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김형환 청장은 무등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시장 내 국밥 집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다. 또한 시장 상인들과 '사랑의福송편' 빚기 행사를 함께 하면서 이웃 주민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 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 간부·직원들과 함께 시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격려했으며, 운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과일, 생필품, 간식 등을 구매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가운데)이 지난 18일 무등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갖고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 車·타이어 무상점검

국내 완성차업체와 타이어업체가 추석 귀성길,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에서 무료로 차량·타이어 점검에 나선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는 오는 20~22일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추석 귀성길 차량을 대상으로 타이어 무상 안전점검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에는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무상점검 서비스 일시와 장소는 ▲21일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강릉방향(한국·금호·넥센) ▲21~22일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 순천방향(넥센), 중앙고속도

로 동명휴게소 부산방향(넥센) 등이다.

캠페인 기간에는 타이어 정비 전문 인력 이타이어 공기업과 마모, 손상 상태 등이 상 유무를 검사하고 올바른 타이어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상담 서비스도 시행한다.

자동차업계도 추석 무상점검에 나선다. 쌍용차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339개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차량 입고 고객을 대상으로 장거리 운행에 대비한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쌍용차는 히터·에어컨 및 타이어 점검을 비롯한 냉각수,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등 오일류 보충, 일상점검 서비스 등을 진행한다. 쉐보레(Chevrolet)도 19일부터 21까지 3일간 광주시 남구 송암동 쉐보레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추석맞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17일부터 5일간 '추석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취향저격' 생활공예품 광주서 한자리

28~30일 DJ센터서 빛고을 핸드메이드페어 260개 부스

독창적 디자인과 스토리가 담긴 수공예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디자인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등과 공동으로 오는 28일부터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 최대의 수공예품 행사인 '2018 빛고을 핸드메이드페어'를 연다. 올해로 7회째를 맞아 행사 규모도 커졌고 참가자들도 많아졌다는 게 디자인센터측 설명이다.

올해 행사에는 전국 200여개 수공예 공방이 260개 부스(전년도 220개)를 마련하고 전시에 참여하는 등 참가자들이 늘었고 전시품도 다양해졌다.

전시에는 섬유공예, 한지, 나전칠기, 도자기, 목공예품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공예를 비롯, 생활자기·천연비누 등 생활용품류, 천연염색·가죽 등 패션 잡화류, 약세서리류, 초컬릿 아트 등 다양한 생활공예 상품들이 선보인다.

디자인센터는 또 행사 기간 ▲광주 공예 명장관 ▲광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광주시 수상작 등을 전시, 전시장을 찾

는 관람객들에게 풍성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공예명장관은 대한민국 명장(3명), 광주 공예 명장(11명), 지역 무형문화재의 작품 20여점으로 채워져 전통 공예의 진수를 들여다볼 수 있다.

목공예·나전칠기 등을 전문으로 하는 9명의 공예명장과 디자이너가 함께 만든 옷칠장신, 딱살 다과잔 등은 현대적 디자인까지 집약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머무르게 할 예정이다.

예비창업자, 공예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의 아이디어 상품과 성공 창업을 위해 내놓은 독특한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부스도 마련된다.

디자인센터는 아울러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공예명장 시연(28일~30일), 캔들홀더 제작 등을 해보는 '똑딱 똑딱' 공예체험도 준비했다.

광주디자인센터 관계자는 "핸드메이드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외 판로지 원 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광주·목포에서 장지까지 30분거리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

수목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